kobic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

바이오소재 뉴스레터

2026 2월호

www.bioone.re.kr

주요 내용

01 **바이오소재 주요 기사**

02 **바이오소재 국내 정책 동향**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호라이즌 유럽 참여 국내 연구자 간담회」 개최,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착수 회의 개최)

03 **BioOne NOW**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 발간)

04 **바이오소재 분석결과**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관련 논문·특허 분석)

05 **국내 주요 소재자원은행 소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

바이오소재 뉴스레터는 바이오소재 분야의 국내외 이슈를 살펴보고,
선정된 분야의 논문·특허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다양한 바이오 관련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BioOne**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인용 시 해당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작성자) 이광희 연구원(lkh3579@kribb.re.kr, ☏042-879-8528)

01 바이오소재 주요 기사(1월 기준)

야생생물

"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소재은행 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섬생물소재은행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을 취득

호남권생물자원관, 한반도 고유·희귀종 식물 표본 1,200점 디지털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 지역에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종 및 희귀식물
표본 1,200점을 대상으로
식물표본 디지털화를 추진

호남권생물자원관, 100개 섬 생물다양성 현황 자료집 공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난 5년간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현황 자료집을 공개

"제주 갈옷 물들이는 '풋감', 혈당·체중 동시 조절 효능"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제주대 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풋감 추출물의 혈당
조절 효능을 확인 후 관련 특허를 출원

호남권생물자원관, 뇌 건강 개선 천연 복합 소재 기술이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기능성 식품
원료를 개발하여 바이오포트코리아에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01 바이오소재 주요 기사(1월 기준)

종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초롱꽃 등 5개 종자 최적 발아조건 구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초롱꽃 등
5개 종자의 휴면유형과
최적 발아 조건을 구명하는데 성공

'설향' 뛰어넘는 차세대 딸기 '미향' 탄생... 당도·경도 다 잡았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맛과 저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수는 물론 수출 경쟁력까지 갖춘 신품종
딸기 '미향'의 품종보호출원을 완료

경북농업기술원, 기후변화 적응형 화훼류 거베라, 국화, 장미 등 5가지 신품종 개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생육이 안정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화훼 신품종 5종을 육성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

해양생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낙지에서 추출한 염증예방 기술 기업에 이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주)참신홀딩스와
낙지 유래 염증성 질환 예방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02 바이오소재 국내 정책 동향

❍ 2026년 1월,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달

- **(국가재정법)** 법 개정으로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국가 연구개발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 법 개정으로 예타 폐지 이후 신규 사업의 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천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

원문 살펴보기

❍ 2026년 1월, 과기정통부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 국내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연구자의 참여를 지속 확대

- **(내용)** '25년 과제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이 확정된 총 7개 과제* 중 6개 과제 연구자들의 경험과 과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

* 식량·농업 분야 3개 과제, 디지털 표준 분야 4개 과제 선정 완료(2026.1.27 기준)

원문 살펴보기

❍ 2026년 1월,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으로,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6~2030)」**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의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

- **(과학기술 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을 제시

원문 살펴보기

03 BioOne NOW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 발간, 1월 기준)

한미약품–Aptose 인수 계약: 투스페티닙(TUS) 중심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 가속화

❍ **(개요)** 한미약품이 자회사인 HS North America Ltd.를 통해 캐나다의 임상 단계 생명공학 기업인 Aptose Biosciences Inc.를 인수함
❍ **(인수의 핵심)** 이번 거래의 핵심은 Aptose의 주요 신약 후보물질인 경구용 AML 치료제 '투스페티닙(Tuspetinib, TUS)'의 유망한 임상 데이터와 그 개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음
❍ **(전략적 의미)** 한미약품은 이번 인수로 TUS 개발을 가속화하고, 북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첫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살펴보기

AI 기반 항체 설계를 통한 신약 개발의 혁신

❍ **(전환)** 딥러닝 생성 모델로 항체 설계가 스크리닝 중심에서 de novo 중심으로 바뀌며, 개발 기간·비용을 줄이고 표적 정밀도를 높임
❍ **(모델성과)** RFdiffusion·BoltzGen·Chai-2가 각각 CDR(Complementarity-Determining Regions) 정밀 설계, 난치성 표적 공략, 전장 mAb의 Cryo-EM 원자 수준 일치로 실험적 타당성을 입증함
❍ **(과제·전망)** 성능 편차·면역원성·off-target을 관리하면 G단백질 연결 수용체·신생항원·비정형 단백질 등 난치 표적 개척과 제로샷·이중특이항체 설계까지 가속이 가능함

원문 살펴보기

2025년도 중국 생명과학 10대 성과 발표

❍ **(개요)** 중국과학기술협회 생명과학회 연합체는 2025년 '중국 생명과학 10대 성과'를 지식 혁신 6개·기술 혁신 4개 과제로 선정했으며, 기초·기술·임상의학 전 분야를 포괄하는 심사를 통해 확정함
❍ **(선정 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 선정 성과는 뇌 신경세포 재생(뇌 복원 젤)과 근적외선 시각 구현 등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혁신을 포함한 핵심 분야의 구조적 진전을 함께 제시함

원문 살펴보기

03 BioOne NOW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 발간, 1월 기준)

데이터 연계·바이오뱅크 협력을 통한 Our Future Health의 잠재력 확대

❍ **(차세대 바이오뱅크 부상)** 'Our Future Health'는 영국 성인 500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는 전향적 관찰 코호트 연구로, 현재 17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생의학 데이터 세트로 부상함

❍ **(편향 문제)** 소수 민족의 참여율을 높여 과거 연구의 편향성을 줄이고자 하지만 자발적 참여자 기반 모집의 본질적인 한계인 '선택 편향'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 **(연계·활용 잠재력)** 바이오뱅크 간 연구를 통해 유전체 데이터(영국 성인 약 10%) 기반 친족 분석으로 부모 유래 효과 등 복잡한 연구를 심화하고, 국가 조사 보완과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정밀 공중보건 연구를 촉진할 잠재력이 있음

원문 살펴보기

WHO 팬데믹 협정을 통한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PABS) 시스템 구축

❍ **(협정 채택)** WHO 팬데믹 협정은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결정한 결의서 WHA78.1에 따라 채택된 법적 규범으로, 형평성·과학·인권·주권·연대를 원칙으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 전 주기를 포괄함

❍ **(PABS 핵심 구조)** PABS 시스템은 병원체 물질과 염기서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과, 그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동일하게 중시하며, 팬데믹 발생 시 제조업체가 WHO와 체결한 PABS 계약에 따라 생산량의 20%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평한 제품 접근을 지원함

❍ **(PABS 부속서)** PABS 부속서는 접근 경로, 이익공유 장치, 거버넌스를 구체화하며, 정부 간 실무그룹이 2026년 제7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최종 문서 채택을 목표로 협상을 주도함

원문 살펴보기

03 BioOne NOW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 발간, 1월 기준)

비만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한 Pfizer의 Metsera 인수

❍ **(개요)** Pfizer는 Metsera 인수로 고성장 비만 치료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자사의 심혈관·대사 역량과 글로벌 인프라로 상업화를 가속하려는 베팅임
❍ **(인수자산)** 핵심은 MET-097i 중심의 후기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과 펩타이드 엔지니어링 플랫폼 확보로, 단기 성과와 중장기 확장성을 동시에 노림
❍ **(거래구조)** Novo Nordisk의 경쟁 입찰로 인수가가 상향되며 최종적으로 주당 65.6 달러 현금 + 조건부 가격 청구권 구조의 대규모 딜로 정리됨

원문 살펴보기

EU 보건 분야의 혁신성, 경쟁력,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신규 조치

❍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EU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 부문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제안함
❍ **(주요 구성)** EU 집행위원회는 EU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 부문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제안함
❍ **(향후 계획)** 생명공학법과 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 규정 간소화(안)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 채택을 추진하고, 회원국과 협력해 '안전한 심장 계획'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임

원문 살펴보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아동 예방접종 개편 배경과 주요 변화

❍ **(개요)** CDC는 과학적 검토 및 선진국 사례 비교를 거쳐 미국 아동 및 청소년 예방접종 일정을 업데이트함
❍ **(문제점)** 이번 아동 예방접종 일정 개편은 과도한 권장 구조와 공중 보건 신뢰 및 접종률 하락,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연구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추진됨
❍ **(주요 내용)** 새로운 일정은 2024년 말 모든 아동에게 17개 예방접종을 권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 특정 고위험군 또는 인구 집단, 공동 임상 의사결정에 기반한 예방접종으로 구분함

원문 살펴보기

03 BioOne NOW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 발간, 1월 기준)

영국,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공식화

❍ **(대체시험법 로드맵)** 영국 정부는 과학계·산업계·동물복지 단체와 협력해 동물실험을 즉각 폐지하기보다 과학적 대체 가능성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을 공식화함

❍ **(연차별 전환 목표)** 2026~2030년을 목표로 피부·안구 자극성 시험, 보톡스 효력시험,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연구 등에서 동물실험을 감축·대체하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함

❍ **(이행 기반 구축)** 대체시험법 확산을 위해 약 7,590만 파운드를 투자해 협력 허브·규제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위원회 중심의 감독과 연구자 교육·우선순위 설정을 병행함

원문 살펴보기

FDA의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시판 후 데이터 수집 지침과 실사용 근거 기반 규제체계 강화

❍ **(CGT 시판 후 관리 강화)** FDA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는 CGT의 장기 안전성·효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판 후 데이터 수집을 제도화하고, 실사용 근거 기반 평가를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 함

❍ **(실행 수단 구체화)** 지침 초안은 4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CGT 시판 후 근거 창출의 현실적 경로를 구체화함

❍ **(규제 체계 강화)** FDA는 CGT 지침과 함께 연방 관보를 통해 식품 시설 등록 관리, 재생의학 치료제 신속 프로그램, OMB 승인 정보 공개를 추진하며 규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원문 살펴보기

의약품 개발에서의 바람직한 AI(Good AI) 활용을 위한 원칙

❍ **(개요)** FDA는 유럽의약품청(EMA)과 협력하여 AI 기반 의약품·생물학적 제제 개발 시 환자 안전과 기존의 품질·유효성·안전성 허가 원칙을 유지하면서 AI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마련함

❍ **(주요내용)** '인간 중심 설계부터 명확하고 필수적인 정보 제공'까지의 의약품 전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증거 생성을 위한 AI 활용을 안내하고, 강화하며, 촉진하기 위한 공통된 10가지 원칙을 제시함

❍ **(향후 과제)** 국제 규제기관과 표준화 기구 간 협력을 통해 연구, 교육, 국제 조화 및 합의 표준을 발전시키고, AI 기술 발전에 따라 원칙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강조함

원문 살펴보기

03 BioOne NOW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 발간, 1월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연구 속도 향상을 위한 모델라 AI 인수

❍ **(인수 배경)** 아스트라제네카는 데이터 집약적이고 시간 민감도가 높은 항암제 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통해 기술 실효성이 검증된 모델라 AI를 인수하고, 멀티모달 기반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종양학 R&D 내부에 통합하기로 결정함

❍ **(모델라 AI의 기술)** 모델라 AI의 기술은 병리·임상 데이터를 결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바이오마커 발굴과 표적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며, 종양학 R&D 전반의 운영 효율 향상에 활용될 예정임

❍ **(전략적 의미)** 이번 인수는 제약 산업 전반에서 확산되는 AI 중심 전략 전환 흐름 속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중장기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AI 역량을 내재화하려는 전략적 조치임

원문 살펴보기

NVIDIA-Eli Lilly 전략적 동맹을 통한 AI 기반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과 제약 R&D 패러다임 전환

❍ **(파트너쉽)** NVIDIA와 Eli Lilly는 AI·컴퓨팅 역량을 신약 개발 핵심 인프라로 내재화하고, 공동 투자와 물리적 협업을 통해 신약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함

❍ **(인프라)** Lilly는 Blackwell GPU 기반 DGX SuperPOD와 Wet-Dry Lab 연속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AI 중심 신약 개발과 24/7 실험 자동화를 구현함

❍ **(생태계)** 양사는 Lilly TuneLab, NVIDIA FLARE, Clara, Inception 등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체로 AI 역량을 확산하고 리더십을 강화함

원문 살펴보기

FDA, 비인간 영장류(NHPs) 대상 임상시험 축소 지침 초안 발표

❍ **(규제 방향)** 단일특이성 항체 비임상 안전성 평가에서 불필요한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최신 과학 근거를 활용한 규제 판단을 공식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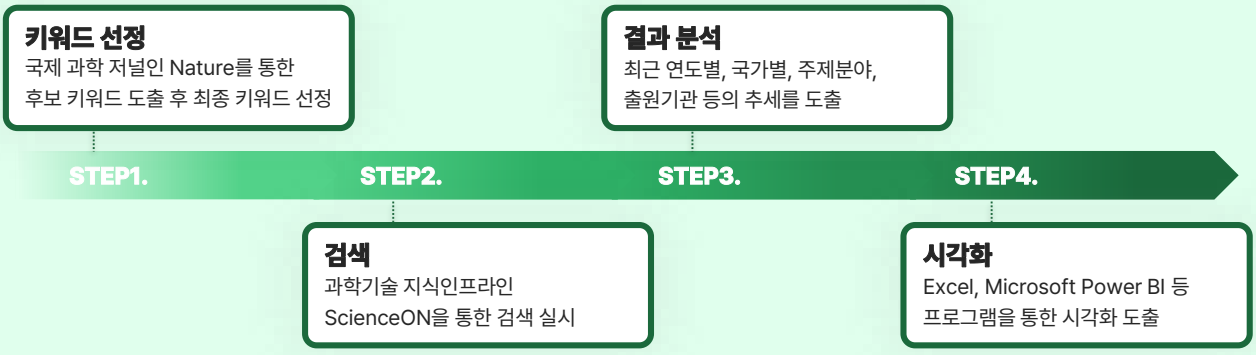
❍ **(독성시험 기준)** 만성 투여 단일특이성 항체의 경우 비설치류 독성 시험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면 충분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위험 평가로 장기 시험 생략이 가능함

❍ **(평가 패러다임)** 약리학적 관련 종 중심 시험 설계와 NAMs(New Approach Methodologies) 도입을 통해 동물실험 의존도를 낮추는 비임상 평가 체계로 전환을 유도함

원문 살펴보기

04 바이오소재 논문·특허 분석

❍ **(개요)** 국내외 바이오소재 관련 연구 논문·특허 등록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특허 분석을 실시



키워드 선정

1) Nature Briefing(국제 과학 저널인 Nature의 뉴스레터)에서 한 달 동안 이슈가 된 바이오 관련 기사를 취합

※ 바이오소재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의 경우, 12월 1~31일의 기사를 취합

2) 취합한 기사를 바탕으로 **후보 키워드**(최대 15개)를 선정

3)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에서 운영하는 내부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키워드**를 선정

키워드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유연한 단백질 구조 예측 정확도 향상으로 신약 설계의 핵심 인프라 기술

- AlphaFold(딥러닝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의 표준 모델)
- Structural genomics(유전체 서열로부터 구조를 대량 예측·분석하는 연구 분야)
- Computational biology(구조 예측을 포함한 생물학 전반의 계산 모델링 학문)
- Protein folding(아미노산 서열이 3차원 구조로 접히는 과정을 예측)
- 3D protein structure(단백질 기능·상호작용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
- Conformational dynamics(단백질의 유연한 구조 변화 예측)
- Structure-based drug design(표적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약물을 설계)
- Antibody structure prediction(항체의 가변 영역 구조를 예측)
- RNA structure prediction(mRNA·ncRNA 2D/3D 구조 예측으로 RNA 치료를 확장)
- Cryo-EM integration(실험 구조 데이터와 AI 예측의 결합)

※ 본 분석결과는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04 바이오소재 논문·특허 분석

검색 및 결과 분석, 시각화

1)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ScienceON에 선정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검색하고, 최근 5년(2021~2025년) 간 데이터를 취합

※ 2021~2025년 기준 총 6,327건 확인(국내 28건, 국외 6,135건, 학위 164건)

2) Excel 결과 파일을 바탕으로 해당 키워드에 대한 동향을 도출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시각화 구현

워드클라우드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연구는 계산·AI 기반 모델을 중심으로 정확도 향상에 집중하며,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과 신약 개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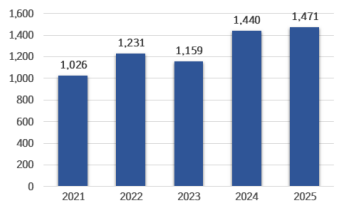
국내외



국내 연구는 계산생물학 기반의 정밀 구조 예측을 중심으로, 면역·감염병 응용과 분자 도킹 분석에 강점을 보이며, 실용적인 문제 해결형 AI 활용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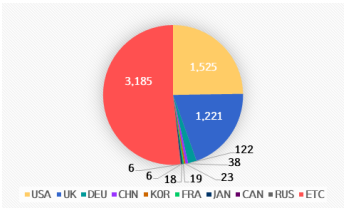
국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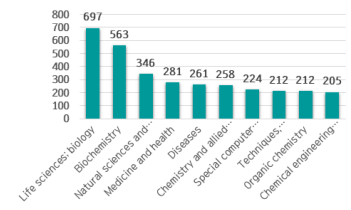
최근 5년간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연구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증가(약 40% 이상)을 보이는데, 이는 단백질 구조 예측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성장 분야임을 보여줌. 특히, 2024년(1,440편), 2025년(1,471편) 시기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백질 결합 예측, AI 기반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연도별



해당 연구는 미국(1,525편)이 AI 기반 구조 예측, 대형 데이터셋 구축 등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영국(1,221편)·독일(122편)이 유럽의 핵심 축으로 기초 알고리즘 및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38편)·한국(23편)이 빠르게 추격하는 다극화된 글로벌 연구 구조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



이 연구는 생명과학·생물학('Life sciences; biology' 697편)에 집중하여 기초 과학 연구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있고, 생화학('Biochemistry' 563편) 기반의 단백질 구조-기능 상관관계 규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또한, 자연과학·수학('Natural sciences and mathematics' 346편)의 알고리즘·모델링 중심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주제분야별

※ 본 분석결과는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04 바이오소재 논문·특허 분석

검색 및 결과 분석, 시각화

1)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ScienceON에 선정된 키워드를 검색(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A61K, A61P, C07K, C12N, C12P, C12Q로 선정)하고, 최근 5년(2021~2025년) 간 데이터를 취합

※ 2021~2025년 기준 총 94건 확인(미국 48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35건, 일본 7건, 유럽 4건, 한국 0건)

2) Excel 결과 파일을 바탕으로 해당 키워드에 대한 동향을 도출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시각화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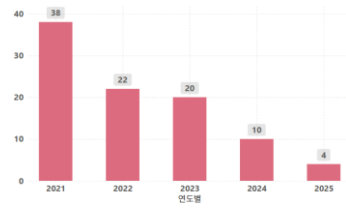
워드클라우드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관련 특허는 '구조 예측 알고리즘' 자체가 아닌 이를 활용한 항체·백신·재조합 단백질 설계 및 생산까지 포괄하는 치료제·플랫폼 중심의 IP 경쟁이 핵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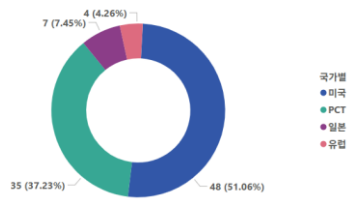
국외

그래프



Protein structure prediction의 특허 출원 수는 2021년 38건에서 점차 급감하였는데, 이는 관련 기술 침체가 아닌 기술 포화와 원천 특허의 선점 완료 후 정밀·응용 중심 특허로 전략이 이동했음을 볼 수 있음

연도별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관련 특허는 미국(48건)이 절대적으로 많고, PCT(35건)의 출원 수도 높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전제로 한 플랫폼 기술 경쟁이 중심으로 보이며, 일본(7건)·유럽(4건)은 응용 중심의 정밀 특허 전략을 취하고 있음

국가별



중국 바이오기업(Ningbo Kunpeng Biotech(7건))이 실용화 중심으로 선도하고 있고, 미국 대학(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4건) 등)이 알고리즘·계산 생물학 기반 응용 특허를 다수 출원하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다극화된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한국은 구조 예측 모델 구축 및 연구 활성화로 관련 분야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원기관별

※ 본 분석결과는 KOBIC 바이오소재 총괄지원단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05 국내 주요 소재자원은행 소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

❍ **(공식 출범일)** 2016년 9월

❍ **근거 및 배경**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용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담수생물소재의 확보·보존·품질관리 및 분양·기탁 업무를 수행**하는 담수생물자원은행을 운영
- **(기후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과기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주요 역할 및 기능**

- 담수생물소재 다양성 확보 및 안정적 보존·관리
- 담수생물소재 유전정보, 기초유용성 및 오믹스 정보 확보
- 산학연 대상 기탁·분양서비스 수행
- 담수생물소재 품질관리 및 보존방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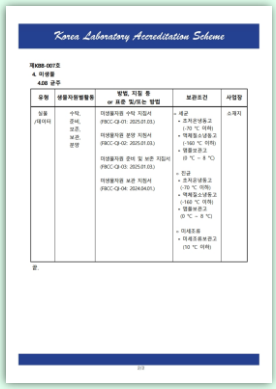
❍ **주요 성과**

- **(국제표준)**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획득(국내 7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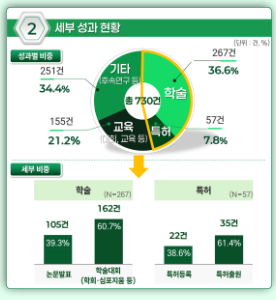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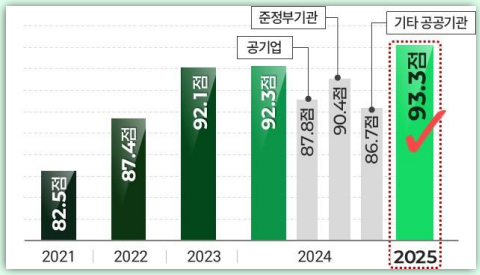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활용성과)** 논문 발표 105건, 학술발표 162건, 특허 57건, 교육 155건, 기타 25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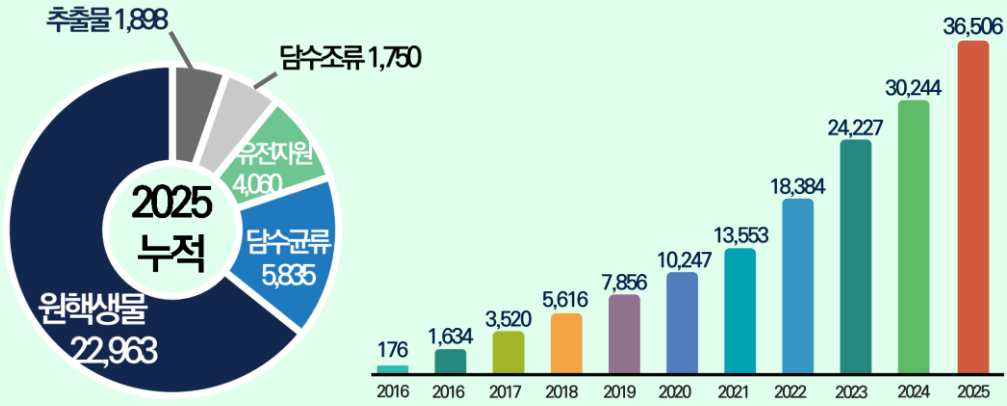


- **(만족도)** 3년 연속 은행 서비스 이용고객 만족도 'A등급'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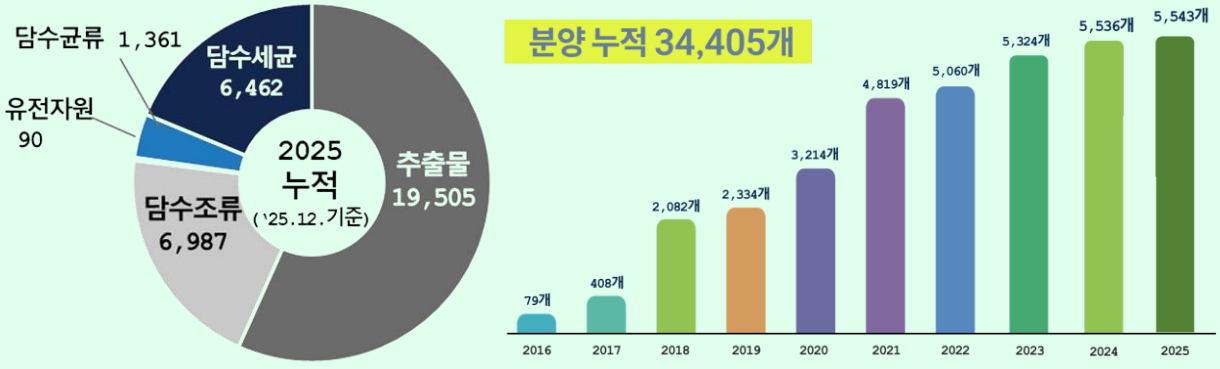


05 국내 주요 소재자원은행 소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

❍ **누적 확보 현황**(2025년 12월 기준)



❍ **분양 현황**(2025년 12월 기준)



❍ **정보시스템**

- **담수생물자원은행 홈페이지** 운영

